기자들의 눈

ijournalist.co.kr

2023년 5월 25일(목요일)

일간 인터넷판 제95호 TEL 032-433-8081

HWPL, 세계평화선언문 10주년… '평화 걷기 행사' 개최

'새로운 10년, 평화제도의 정착' 행사 참가자…구름떼처럼 모여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이만희 대표가 25일 서울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HWPL 세계평화선언문 제10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행사에서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기자들의 눈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25일 오전 88올림픽 공원에 평화의 광장에서 세계평화선언문 10주년을 기념하는 '525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HWPL은 세계평화를 심은 단체로 알려져 있다. 평화 국제법 DPCW 10조 38항을 통해 분쟁 예방과 해결, 평화문화 전파 등 원칙을 담고 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 '종교'임을 깨닫고, 전 세계 종교지도자들과 '종교토론'을 진행하여 각자의 경서를 비교하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고 교류하고 있다.

HWPL 단체는 다양한 세계시민들이 국경, 문화, 인종을 초월하여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세계평화선언문 10주년 525 걷기대회는 평화의 이념을 다시 기억하고자 '위아원' 우리는 하나라는 뜻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남녀노소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세계평화선언문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그간 지지서명 캠페인, 피스레터 캠페인 등 많은 활동을 통해 피부로 느끼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HWPL은 지구촌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해답은 바로 평화라고 한다. 이만희 대표가 선두에 서서 외치고 있는데, 각국의 수상 등 내외적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만희 대표는 40여 년간의 종교전쟁으로 약 12만 명의 희생자를 낸 필리핀 민다나오 전쟁 종식을 시켜 평화의 사자로 불리고 있다.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된 이만희 대표는 종교의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93세의 노구에도 평화를 위해 나아가는 선구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

HWPL 협력단체로는 세계여성평화그룹 IWPG가 있다. 세계여성들과 협력해 각국에 지부를 두고 세계평화 활동을 하고 있다. 또 국제청년평화그룹(IPYG) 단체 또한 남북통일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세계 청년들이 NGO 활동을 통해 지구촌에서 빈곤 등 개선을 위해 영역을 넓히며 활동을 하고 있다.

HWPL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그간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협력단체들과 다시 행사를 게재함으로 걷기대회를 통해 평화를 표현했다. 민간단체의 아름다운 뜻이 이번 행사에서 전해졌다.

HWPL 이만희 대표는 "걷기대회 행사를 통해 세계 지도자들과 지구촌 세계인들은 DPCW 10조 38항에 서명하고 지지하라고 촉구하면서 유엔은 평화를 위해 강제적 법제정을 입법하라"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최승언 기자 wheelibee@naver.com

시흥시 신천동 그린벨트 임야 불법 훼손 난리

자치단체, 무허가 건물…정말 몰랐나

신천동 그린벨트 훼손 현장 /기자들의 눈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488번길 21 주변 임야(그린벨트)가 훼손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취재가 들어가자 현장을 나가는 등 책상다리 행정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A 씨 제보자에 따르면 상기 고발지역은 2022년도 산사태로 인한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으로 판단되지만 훼손된 면적이 너무 넓어 공무원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신천동 임야 인근에는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허가(신고)된 면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한다. 시민의 권리는 그린벨트 훼손으로 삶의 질이 파괴된다는 것.

문제는 그린벨트 훼손이 지속 시간이 흘렀음에도 방치됐다고 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길을 내는 등 자치단체가 그동안 눈을 감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수도가 들어오기 전 지하수 퍼 올려 저장한 물탱크가 있었다.

하지만 과거 물탱크를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탱크 위에 무허가로 건물이 들어섰다는 원성이다.

이는 불법이고 그간 처리하지 않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자치단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이라고 주민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위법에 대해 강력한 당국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설명을 듣고 즉시 나가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은 "아직 결과에 대해 답변하지 않아 엉터리라면 공익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양훈 논설위원

인천시, '중구 신흥동 옛 시장관사' 시민에게 개방

서재·갤러리로 활용…1930년대 가옥

인천시는 24일 오후 신흥동 옛 시장관사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한 것을 기념하는 개관식을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 12번길 10 (신흥동1가 19-7)에 위치한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목조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된 연회색 단독주택이다.

특히 서양 건축 양식과 전통 일본식 주택 요소를 더한, 1930년대 문화주택의 전형적인 건축 공간 구조를 간직한 근대 건축물로 1938년 지어져 1954년부터 1966년까지 인천시장관사로 사용됐다.

1977년 일반 시민에게 매각돼 가정주택으로 이용되던 주택을 인천시가 2020년에 매입해 새롭게 정비했다. 역사적·문화적·주거사적 가치가 큰 건축물을 보존해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음 세대까지 인천의 정체성과 가치를 계승한다는 취지다.

개관행사는 식전공연(실내악 공연), 개관식 및 도서 기증식, 작은 음악회(1938년도에 나온 노래, 리베르탱고, 수선화 등 성악가 정수진, 정진성 초청)로 구성했다.

또한, 개관식과 함께 신흥동 옛 시장관사의 건축적 특수성을 담은 기념 전시도 진행됐다. 개관식과 함께 전면 개방되는 옛 시장관사는 시민 서재와 갤러리로 활용된다. 최재윤 기자 cjy6148@naver.com

이행숙 시 정무부시장, 中 윈난성 부성장과 논의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교류 방안

인천광역시는 24일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시청을 방문한 중국 윈난성 장즈리(张治礼) 부성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우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윈난성은 '비철금속의 왕국'이라 불린다. 전기분해 알루미늄 세계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주요 알루미늄 생산 허브다.

차마고도(茶馬古道)의 시작점으로서 최상급 차류 수출과 함께 최근에는 커피 생산의 세계 흐름도를 바꿀 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원두를 생산해 수출 규모가 급증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주요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장즈리 부성장은 "세계적 국제도시로 도약한 인천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인천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한층 강화해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행숙 부시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미래 시대 글로벌 인재들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협력 가능분야 교류 확대를 통해 상생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윤 기자 cjy6148@naver.com

HWPL 세계평화선언문 제 10주년 기념식 ‘WE ARE ONE!’

국제적인 평화NGO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이 5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올림픽공원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HWPL 세계평화선언문 제10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이만희 HWPL 대표와 윤현숙 IWPG 대표, 정영민 IPYG 대표, 6.25 참전 유공자 등 총 5000여 명이 함께 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는 '평화를 위한 다짐서'를 참가자 전원이 작성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HWPL, 국제청년평화그룹(IPYG),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이 주최하고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중앙회 외 20곳이 주관, 해외에서는 코트디부아르국가 청년위원회, 인도 변호사협회가 주관한다.